

평도자의 호소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천 아버지의 따뜻한 정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헤치며

경에 하는 최고평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태풍피해현장을 찾으시어 그 피해를 하구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신 소식이 전해져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지난 8월초에는 큰물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고 8월말에는 태풍8호에 의한 피해 상황을 알아보시려 황남당의 포전길을 걸으시더니 9월초에는 렬차강행군으로 태풍9호에 의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를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현지에서 자연재해 복구전투조직을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피해지역을 돌아보시었다. 그리고 현지에서 함경남북도피해복구를 위하여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었다.

천혈육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뜨겁고 절절하겠는가. 피해지역 인민들의 부모, 형제, 친척들도 미처 다는 알지 못하고 또 알았다고 하여도 이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고있던 그때 그이께서는 피해복구건설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공개서한에서 10월 10일이 눈앞에 막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란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철을 쇠게 할수는 없다고,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가서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두라해야 할 최전선이 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보내신 공개서한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이다.

하기에 공개서한에 접한 사람들은 《인민들을 위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눈물이 절로 나왔다. 그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정말이지 우리 원수님의 품은 온 나라 인민들이 순간도 떠나서 살수 없는 운명의 품이라는데를 다시금 절감하였다.》고 격정을 다치었다.

이 나라 천만식물 한사람한사람을 자신의 귀중한 살비로 여기시고 그들의 커가는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열사복무의 길을 걷고계시는 인민의

평도자이시기에 인민이 당한 불행 행을 가서는 것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는것이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 라선시에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문제를 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 큰물피해복구문제를 중요의정으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즉석에서 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해 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러시고도 하늘길, 배길, 땅길을 달려 2천여리나 떨어진 라선시 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어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는 그이 품은 온 나라 인민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그 다음해 함북도 북부지역에 또다시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수재민들의 고통을 하구루빨리 가서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군인들을 포함한 방대 한 건설력량과 수단들을 북부피

해지역으로 파견해 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다.

올해에도 례년에 없는 큰물과 태풍으로 공화국의 적지 않은 지역에서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재난과 불행에 우는 사람은 없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공개서한에 접한 피해지역 인민들은 《태풍에 집이 무너져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고 걱정하였는데 원수님께서 우리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집까지 지어주시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당의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다는 시구절은 바로 이런 사랑을 두고 지은것 같았다. 정말 이제는 마음이 든든해진다.》, 《부모들도 이 란리통에 우리 집에 와보지 못하였는데 원수님께서 머나먼 길을 달려서 이 동해바다의 자그마한 어촌마을을 찾아주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셨다. 우리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다.》고 격정을 터치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다 말해 주고있다. 인민이 안겨사는 따뜻한 삶의 품이 무엇인가를.

심철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사태속에서 공화국에는 례년에 없이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련속 들이닥치었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나 몰리시지 않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더 좋은 레임을 건설해가고있다.

그 진두에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잠시 휴식도 없이 애민현신의 길을 걸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지난 3월에는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의 첫삽을 뜨시었고 세계적 대류행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폭우와 큰물로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몸소 피해지역들을 찾으시어 피해를 하구루빨리 가시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시련속에서 더 뜨겁게 품어안아주시는 위대한 아버지를 우러러 인민은 추수치는 걱정을 더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이것이 오늘 더욱 굳세어지는 공화국의 민심이다.

위대한 평도자를 높이 모신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래일에 대한 심심과 락관을 안고 온 나라가 피해복구사업에 떨쳐나섰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피해복구에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며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농업부문에 강풍에 의하여 넘어진 농작물들을 일으켜세우고 비배관리를 잘하여 알곡소출의 감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알심있게 해나가고있으며 전국적으로 파괴된 송전선계통과 도로들을 빨리 복구하고 손실을 입은 건물들의 개건보수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피해지역 살림집공사장들에서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민군인들과 어깨걸고 치열한 철야전투를 벌려 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총동원전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지금 공화국인민앞에는 태풍피

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과 큰물피해복구전투를 동시에 내밀어야 할 어렵고도 방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직면한 도전과 난관은 간단치 않다.

하지만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도가 있고 평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태풍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는 확정적이다.

자연은 무서운 재해를 련속 몰아오지만 그 횡포한 자연의 광란을 길들이며 공화국은 더 큰 전진의 보폭을 내걸고있다.

말할만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투에 평양의 당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는 결코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초긴장의 강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굳은 단합을 이룩하는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라고 하시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평도자와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어 오늘날의 난관을 이기고 이해에 더 크고 값진 승리를 안아오게 될 공화국이다.

김은아

시련속에서 더 뜨겁게 안아주는 손길

편이 들어닥친 큰물과 태풍으로 여러 지역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 땅에서는 추호의 비판이나 질망의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다.

경에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재난도 이겨낼수 있다고 목매여 터치는 인민의 신념

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온 나라 인민이 태풍피해현장을 찾으시어 피해 상황을 료해하시고 한자 한자 품소 쓰시어 수도 평양의 전체 로동당원들에게 보내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을 절하고 피해복구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평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현연일체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국풍으로 되고있다.

이 현연일체의 위력난관도 이겨내며 더 큰 승리를 마중해가고 있다.

시련속에서 더 뜨겁게 인민들을 품어안아주고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당을 따라 력사의 준엄한 난국을 헤쳐온 공화국인민은 승리의 기쁨을 휘날리며 10월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유성

수십만명! 함경남북도의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수도의 핵심당원들로 최정예사단을 조직할때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이 발표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복구전역에 탄원해나선 수도의 당원들 수자이다.

단 하루동안에 1만 2 000명의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조직되어 현지로 떠나갔다.

한자 또 한자 그이께서 쓰신 공개서한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천 아버지의 사랑이고 간곡한 부탁이다.

마디마디 진정이 넘치는 평도자의 공개서한은 누구나 눈물없이 볼수 없었고 감동없이 들을수 없었다.

하기에 서한을 접하자마자 수도의 당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것이다.

무릇 전쟁시기에도 한계 사단을 새로 조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전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것도 불과 몇시간만에 수십만명이 탄원해나선고 단 하루동안에 최정예

리에 새겨달라고 청원한 당원들도 많다.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모두 당원이라며 집안식구모두를 피해복구전투장에 내보내달라고 제기한 당원들도 있다.

평도자의 부름이라면 눈보라 만리길도 헤쳐가고 세찬 풍랑도 맞받아나가는것이 바로 경에하는 원수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일하는 조선로동당원들이다. 자기 평도자를 한몸바쳐 보위하고 평도자의 구상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가는 이런 수천수만의 당원들이 있기에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쁨이 그 어디서나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세상에 각이한 이름의 당은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평도자와 뜻과 정으로 이어진 이런 당원들을 가진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제일 강하고 위력한 당이다.

김진혁

승강도 떠나 살수 없는 운명의 품

경에하는 최고평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함경남도 태풍피해현장에서 진정을 담아 한자두자 정히 쓰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

이라고 하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맥박치는 우리 원수님의 공개서한!

세계도처에서 폭우와 큰물,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고 절망에 잠겨있을 때 어느 지도자가 자기 인민을 위하여

이렇듯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공개서한을 보낸적이 있었던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그 끝을 알수 없는 무한대현상이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은 순간도 떠나 살수 없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이며 그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직장장 리강전

정말이지 세상은 넓고 넓어도 우리 원수님이 제일이고 뜻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제일이다.

우리 원수님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갈 투철한 신념을 안고 수도의 당원들과 힘을 합쳐 피해복구전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겠다.

홍원군인민위원회 부원 승금철

수십만명! 함경남북도의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수도의 핵심당원들로 최정예사단을 조직할때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이 발표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복구전역에 탄원해나선 수도의 당원들 수자이다.

단 하루동안에 1만 2 000명의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조직되어 현지로 떠나갔다.

한자 또 한자 그이께서 쓰신 공개서한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천 아버지의 사랑이고 간곡한 부탁이다.

마디마디 진정이 넘치는 평도자의 공개서한은 누구나 눈물없이 볼수 없었고 감동없이 들을수 없었다.

하기에 서한을 접하자마자 수도의 당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것이다.

무릇 전쟁시기에도 한계 사단을 새로 조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전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것도 불과 몇시간만에 수십만명이 탄원해나선고 단 하루동안에 최정예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물이 앞을 가리워 볼수가 없었다.

태풍9호가 휩쓸고간, 발목이 폭죽 빠지는 바다가의 험한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우리 원수님.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인민들을

두고 너무도 가슴아프고 쓰리시어 태풍피해 현장에서 손수 한자 또 한자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신 그이의 심중의 세계가 흥벽을 세차게 두드려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내 사는 고향은 평양과

멀리 떨어진 외진 바다가 한끝이여도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가장 가까이 에 내가. 아니 우리모두가 안겨있구나. 그이의 따사로운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도 지켜주고있구나 하는 끝없는 행복감에 로동당만세소리가 절로 울려나왔다.

정말이지 세상은 넓고 넓어도 우리 원수님이 제일이고 뜻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제일이다.

우리 원수님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갈 투철한 신념을 안고 수도의 당원들과 힘을 합쳐 피해복구전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겠다.

홍원군인민위원회 부원 승금철

수십만명! 함경남북도의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수도의 핵심당원들로 최정예사단을 조직할때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이 발표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복구전역에 탄원해나선 수도의 당원들 수자이다.

단 하루동안에 1만 2 000명의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조직되어 현지로 떠나갔다.

한자 또 한자 그이께서 쓰신 공개서한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천 아버지의 사랑이고 간곡한 부탁이다.

마디마디 진정이 넘치는 평도자의 공개서한은 누구나 눈물없이 볼수 없었고 감동없이 들을수 없었다.

하기에 서한을 접하자마자 수도의 당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것이다.

무릇 전쟁시기에도 한계 사단을 새로 조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전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것도 불과 몇시간만에 수십만명이 탄원해나선고 단 하루동안에 최정예

리에 새겨달라고 청원한 당원들도 많다.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모두 당원이라며 집안식구모두를 피해복구전투장에 내보내달라고 제기한 당원들도 있다.

평도자의 부름이라면 눈보라 만리길도 헤쳐가고 세찬 풍랑도 맞받아나가는것이 바로 경에하는 원수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일하는 조선로동당원들이다. 자기 평도자를 한몸바쳐 보위하고 평도자의 구상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가는 이런 수천수만의 당원들이 있기에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쁨이 그 어디서나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세상에 각이한 이름의 당은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평도자와 뜻과 정으로 이어진 이런 당원들을 가진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제일 강하고 위력한 당이다.

김진혁

오가는 혈연의 손길

에 안고 산다.

조국보위의 총을 멘 초병들은 자기가 지켜선 초소의 길이 원수님 계시는 수도 평양으로 가는 길과 잇닿아있다는것을 항상 생각하며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다. 영웅한 비행사들도 우리의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엔 평양이 있다는 노래를 즐겨 부르며

수행결사우위의 항로를 힘차게 날고있다.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초병들만은 아니다.

부창의 로동계급은 평양의 밝은 불빛을 지켜 발전기들의 동음을 더욱 힘차게 울려가고있고 2.8직동청년단량을 비롯한 각지의 란광들에서는 평양을 항상 마음속에 그러며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나라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인 과일군에서는 해마다 첫물과일들을 알알이 플라 수도 평양으로 보내오고있으며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지금이 시각 평도자의 인민사랑에 의해 날마다 몰라보게 달라지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해 땅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어디 이뿐인가. 황금해의 새 력사속에 각지의 수산부문에서는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의 식탁위에 사회주의 바다항기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수도 평양에서도 지방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있다.

백두산아래에 회한하게 일떠선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 넘쳐나는 거창한 시대의 창조물들따마에는 평도자의 뜻과 구상을 받들어 온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의 남부로서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도 무수히 것들어있다.

최근 공화국에서 큰물과 태풍으로 여러 지역이 재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수도의 각계층 인민들은 많은 생활용품, 자금 등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지방인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공화국에서 수도와 지방은 하나의 뜻과 승결로 이어져있다. 오가는 혈연의 손길은 온 나라를 감동시키고있다. 이것은 평도자를 중심으로 온 나라 인민이 굳게 뭉친 현연일체의 또 하나의 감동적인 화폭이다.

김기철

수십만명! 함경남북도의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수도의 핵심당원들로 최정예사단을 조직할때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이 발표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복구전역에 탄원해나선 수도의 당원들 수자이다.

단 하루동안에 1만 2 000명의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조직되어 현지로 떠나갔다.

한자 또 한자 그이께서 쓰신 공개서한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천 아버지의 사랑이고 간곡한 부탁이다.

마디마디 진정이 넘치는 평도자의 공개서한은 누구나 눈물없이 볼수 없었고 감동없이 들을수 없었다.

하기에 서한을 접하자마자 수도의 당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것이다.

무릇 전쟁시기에도 한계 사단을 새로 조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전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것도 불과 몇시간만에 수십만명이 탄원해나선고 단 하루동안에 최정예

진정을 잘 알려주고 그들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벌려나가기로 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불난 집엔 건질것이 있어도 물난 집엔 건질것이 없다는 말처럼 태풍과 큰물은 혹심한 파괴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생명안전과 나라의 사회경제

화를 복으로.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뜻밖의 폭우로 재난을 당하였던 최북단 라선시인민들이 잃은것보다 얻은것이 많다고 한것이 바로 그의 미일것이다.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피해지역에 1 300여세대에 달하는 새 살림집들이 번듯하게 건설되었고 TV수상기와 집기류, 이부자리, 일용품 등 생활용품들이 매 세대들에 돌려지었다.

인민들의 생활을 언제나 구석구석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덕정치아래 온 나라가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제도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은 있어도 절망이나 비판에 겨워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생활환경에서 살게 되었으니 화가 복이 된것이 아닌가.

본시기자 리설

